

중국방송 변천사에 관한 연구

- 콘텍스트 속에 텍스트 찾기

姜秀姬*

<目 次>

1. 서론
2. 계획경제시대의 중국방송(1958-1978)
 - 1) 사회주의 건설과 선진수단으로서의 방송
 - 2) 계획경제 시대의 프로그램과 방송의 특징
3.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방송(1979-1991)
 - 1) 개혁개방과 본격적 방송 정책
 - 2) 개혁개방 시기 방송프로그램의 특징
4. 중국방송의 '산업' 형성기(1992-2000)
 - 1) 등소평의 남순강화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방송
 - 2) 프로그램 구조 조정, 전문채널 설립, 방송선전의 전반적 수준 제고
5. 방송산업의 정합(整合)기(2000-현재)
6. 결론

1. 서론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문화산업, 특히 방송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변화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동인은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적 변화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선전 수단으로만 규정되던 방송은 개혁개방 이후 정부정책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으

*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語通譯學院 講師

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경제 환경의 호전에 힘입어 일반인들의 사회·문화적 생활에서 언론 매체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방송 커뮤니케이션 환경에는 서로 모순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지속과 안정을 바라는 중국공산당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산업적 발전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방송종사자 그리고 양자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정부¹⁾, 이들 삼자간의 관계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중국 방송의 조화와 발전을 이끌어온 정치적 동력이라 할 수 있으며, 放送史의 서술에는 이들 구성요소 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사실, 그 간 국내의 연구들은 중국 방송변화의 제도적 방향, 특히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주봉의는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언론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²⁾에서 한국내의 중국 언론에 대한 연구가 다소의 시각적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언론의 4이론³⁾중 한 요소인 ‘공산주의적 언론’의 시각에서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정치변화에 따라 중국 방송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 放送史에 대한 한국 내 이러한 연구 경향은, 시간의 흐름을 중요한 변인으로 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동질체(identities)’들이 어떻게 그 성질을 유지하고 변화하는가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체계로써 放送史를 바라보는 것⁴⁾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방송이 해당 시기를 중심으로 그 특징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중국의 연구들 역시 중국방송이 계획경제시대에 탄생했고, 80년대 시장화의 길로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사업으로만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탕위민(唐月民)은 <중국방송의 산업화 연구>⁵⁾에서, 중국의 방송이 산업화된 계기를

1) 허진, <중국 방송의 구조와 개혁 그리고 전망>, 《언론과학연구》 제2권 2호, 2002, p.226.
 2) 주봉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언론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p.15.
 3) 언론의 체제와 그에 대한 통제방식 등에 관한 이론으로, 권위주의이론(authoritarian theory)·자유주의이론(libertarian theory)·공산주의이론(Soviet communist theory) 및 사회책임이론(social responsibility theory)으로 나뉜다. 미국의 언론학자들인 시버트(Fred S.Siebert)·피터슨(Theodore Peterson)·슈람(Wilbur Schramm)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체제에 관한 이론들을 그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 분류해서 그것들을 이처럼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4) 조항제, <방송의 역사적 지식체계의 한계와 대안적 접근>, 《언론과 사회》 14권 4호, 2006, p.3.
 5) 唐月民 <中国电视传媒产业化研究>, 山东大学博士学位论文, 2008.

개혁개방으로 잡으면서, 중국방송에 부여되던 단일한 선전기능에 경제적 역량이 부각되었음을 강조하고, 산업화 정도를 기준으로 중국放送史를 구분하였다. 즉, 중국방송은 국가재정을 집행하며, 선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서, 광고를 매개로 자본시장으로 편입하며, 산업적 틀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탕위에민이 방송의 산업화 정도를 중심으로 放送史를 구분하였다면, 류시량(刘习良)⁶⁾은 정치적 사건들이 중국방송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이들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중국방송의 변화를 다루기도 했다. 개혁개방은 시대적 요청이었을 뿐이고, 개혁개방으로 방송에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 아닌, 정치적 변화에 의해 방송에 규제가 풀리면서 방송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개혁개방 정책이 진행되면서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가,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방송이 전환기를 맞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이 방송변화의 계기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중국 放送史를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방송제도의 변화, 이를 통한 프로그램과 방송 특성의 변화를 하나의 동질체(identities)로 보고 그 양상을 기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즉, 정치 경제적 변화가 끼친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만, 중국 放送史를 풍부하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 병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탐색적 기능을 하고자 한다.

탕위에민이 보았듯이, 중국방송은 산업적으로 개혁개방을 기준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지만, 장루이(张锐)⁷⁾는 방송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 공산당이 방송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설비 및 인력을 제공하던 시기(1958~1978), 정부가 언론부처에 대해 기업화관리를 준비했던 시장화 맹아기(1979~1991), 방송이 산업화를 시도하는 시기(1991~2000),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방송산업의 조정기(2000-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방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기술적 변화를 기준으로 쑨쑨후(孙振虎)⁸⁾는 ‘방송의 영화영상시대’, ‘방송의 전자영상시대’, ‘방송의 디지털영상시대’⁸⁾로 시대를 구분했지만, 시기적으로 앞서의 제도적 구분과 큰 차이를 보이지

6) 刘习良, 《中国电视史》, 北京: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7.

7) 张锐, <我国电视业制度变迁中的路径选择研究>, 北京: 中国传媒大学博士学位论文, 2004.

않는다. 이는 결국 중국 방송에 미치는 정치 제도적 영향력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 방송의 성장에 미치는 제도적 변화 시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비롯한 방송의 특징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이는 방송 조직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사건에 치우친 서술을 극복하는 보완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2. 계획경제시대의 중국방송(1958-1978)

1) 사회주의 건설과 선전수단으로서의 방송

개혁개방 전 중국방송은 광파사업국(广播事业局)의 관리를 받으며, 국가재정에 의해 운용되는 일종의 ‘사업단위(事业单位)’⁹⁾이었다.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1956년까지, 중국은 계획적인 경제건설과 사회주의로의 전환에 힘쓰며 ‘사회주의개조’를 진행했고, 당시 전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두 가지 뿐이었다.¹⁰⁾ 1956년 9월, 중국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시 중국의 최대 모순을 더 이상 계급 간 모순이 아닌 경제모순으로 규정하면서 1957년에서 1966년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전면건설의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다.¹¹⁾ 하지만 1966년 5월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으로 10년간의 동란에 빠지고, 방송은 문화대혁명 추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극좌사상의 선동, 개인숭배 고취, 당권쟁탈 음모 등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1977년 8월 중국공산당 제11차 전국대표대회가 문화대혁명의 종식을 선포하면서, 20세기 안에 중국을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잡는다.¹²⁾

8) 孙振虎, <技术革新背景下的电视传播革命>, 《中国电视》, 北京, 2008. 12.

9) 사업단위의 속성에 대해서는 1963년 7월22일 <국무원의 편제관리에 관한 잠정방법(초안)(国务院关于编制管理的暂行办法)>에서 “국가의 생산여건 창조와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추진과 인민의 문화, 교육, 위생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국가사업비로 경비를 지출하는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10) 刘习良, 《中国电视史》, 北京: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7, p.3.

11) 위의 책 p.4.

1958년 4월 중앙광과사업국(中央广播事业局)이 북경에서 ‘제5차 전국광과공작회의(第五次全国广播工作会议)’를 개최, 회의를 통해 “방송은 계급투쟁의 수단이다”, “정치는 방송업무의 대약진을 총지휘한다”¹³⁾고 규정하며, 방송이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중국적 전통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 67년1월11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中共中央)는 <라디오방송국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广播电台问题的通知)>를 발표, 전국방송국에 대한 관리를 군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하고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일체 방송이 금지된다.¹⁴⁾ 대부분의 방송국은 방송이 중단되고 문화대혁명의 선전수단으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지식, 교육, 감상, 오락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모두 철폐되고 모택동에 대한 개인숭배에 방송이 이용된다. 이후 1976년 10월 문화혁명 종결과 함께 언론계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언론사업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방송국 수가 늘어나고 국가방송국으로 설립된 북경방송국은 1978년5월 ‘중앙방송국(CCTV)’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당시 계획경제 하에서, 방송은 정치선전도구이자 사회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소유권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었다. 방송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설비 및 인력 등은 국가가 전적으로 제공했으며, 국가재정으로 모든 뒷받침이 이루어졌다. 방송국은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으로 자체 송출하였으며, 방송국 간 물물교환을 통한 약간의 프로그램 교류가 있었다. 즉, 이 당시 중국 방송은 당의 선전기관 그 자체인 것이다. 때문에 당과 정부의 지원이 강력해서, 대약진으로 인한 3년간의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송설비구매를 지원하고 인프라 건설에 힘을 쏟았다.

2) 계획경제 시대의 프로그램과 방송의 특징

이 시기 프로그램은 ‘중앙뉴스다큐영화제작소(中央新闻纪录电影制片场)’가 제작한 ‘뉴스브리핑(新闻简报)’이 주된 프로그램으로 주 시청자는 당과 국가의 고위 간부층에 해당했다. 당시 뉴스가 다큐멘터리영화처럼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시기

12) 위의 책 p.127.

13) “广播是阶级斗争的工具, 政治是广播工作大跃进的统帅.” 赵玉明, 《中国广播电视史》, 北京: 中国传媒大学出版社, 2006, p.246.

14) 刘习良, 《中国电视史》, 北京: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7, p.76.

를 ‘뉴스다큐의 시대(新聞紀象片時代)’라고도 일컫는다.¹⁵⁾ 초창기 북경방송의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뉴스를 제외하고는, 영화와 희극 중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¹⁶⁾, 대부분의 시청자가 단체로 표를 구입해 방송을 시청했으며,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녹화설비가 없어 바로 현장에서 방송하는 형태이었고 1964년에야 일본에서 녹화설비를 들여오지만 사용에는 제한이 있었다. 방송은 모두 한번 찍어 내보내면 자료는 남지 않는 상태이었으며, 프로그램 형태도 사진보도, 간략한 뉴스, 구술뉴스, 뉴스영화 등이 위주였고 대부분 그림이나 사진과 더불어 해설이 삽입되는 수준이었다. 더불어 초기 방송은 교육적 기능이 중시되어, 방송 강좌가 생기고 방송통신대학이 문을 열었다.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지만, 당시 오락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정치선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발전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방송대약진운동’의 실패로 텔레비전 수상기의 수입이 중단되고, 북경방송국은 프로그램을 축소하며, 1963년에는 기존 36개 이었던 방송국은 8개만 남게 된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12월21일 북경방송국이 <시간(詩刊)방송음악회>를 중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계는 해빙기를 맞는다. 문화혁명 말기에 모택동을 위해 제작된 경극과 곤극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들이 대중에 공개되고 외국수녀들의 중국방문과 함께 외국영화가 들어왔으며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드라마가 녹화방송으로 전환되면서 이 시기 방송은 ‘작은영화관’으로 불리기 시작 한다¹⁷⁾. 문혁 초기 중단되었던 스포츠, 건강 상식, 아동, 문화생활 등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과학과 교육계에도 봄이 찾아와 77년 말부터 북경방송국에서 TV교육 강좌가 다시 방영된다.

15) 郭鎮之, 《中國電視史》,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 pp.4-5.

16) 郭鎮之의 위의 책 p.6에 따르면, 58년도 북경방송국의 프로그램은 영화 75%, 희극중계 15%, 이듬해인 59년도에는 영화 50%, 희극중계 30%를 차지함.

17) 위의 책 p.16.

3.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방송(1979-1991)

1) 개혁개방과 본격적 방송 정책

1977년 8월 중국공산당이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문화대혁명의 종식을 선포하며 20세기 안에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특히, 1978년 12월13일 중국공산당 중앙공작회의 폐막식에서 덩소평이 <사상해방, 실사구시, 단결일치하여 앞으로 나아가자(解放思想, 实事求是, 团结一致向前看)>를 주제로 연설을 발표하고 '11기3중전회(十一届三中全会)'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어서 1982년 9월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十二次全国代表大会)'의 개막사에서 덩소평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을 제시함으로써 개혁개방의 이론적 틀을 공고히 한다.¹⁸⁾

1982년 5월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국무원 산하 기구 개혁 실시방안에 관한 결의(关于国务院部委机构改革实施方案的决议)>가 통과되면서 국무원 산하 기구들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중앙광파사업국(中央广播事业局)'이 '중화인민공화국광파전시부(中华人民共和国广播电视部)'로 승격되고,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광파사업국들도 속속 광파전시청(广播电视台)이나 광파전시국(广播电视局)으로 개편된다.¹⁹⁾

이러한 조직적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4급 방송 설립(四级办电视)'정책이었다. 1958년 텔레비전방송이 도입된 이래, 중국에서는 중앙과 성 단위에서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일정 조건을 구비할 경우, 시와 현에서도 현지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방송국을 설립하고, 중앙 및 성 방송국 프로그램의 중계 외에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관할 시와 현에 방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8) 刘习良, 《中国电视史》, 北京: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7, pp.127-128.

19) 위의 책 pp.132-133.

한편, 1979년 8월 문화부가 ‘영화배급상영관리체제(电影发行放映管理体制)’ 개혁을 단행, 정부재정에 완전히 의지하던 영화는 독자적 운영으로 전환되고, 방송 역시 경쟁에서 예외일 수는 없게 된다. 중국 정부는 언론부처에 대해 ‘사업단위에 대한 기업화 관리’ 시행을 비준했고, 1979년 1월 1일 상해방송국이 중국 최초로 광고를 방송하면서, 방송이 단순한 ‘선전형(宣传型)’에서 ‘선전과 경영 병행(宣传与经营并重)’으로 변화되었다.²⁰⁾ CCTV는 1979년 이전까지 전액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비영리성 사업기구이었다. 1979년 당시 중앙광고사업국이 재정부가 제정, 시범 운영 중인 ‘예산도급제(预算大包干)’라는 재정정책에 근거하여 CCTV를 시범기구로 삼아 ‘차액보조, 잉여액 보존(差额补助, 结余留用)’의 관리방법을 시행했고, 자체적으로 부서 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같은 해 CCTV는 중국방송서비스공사(中国电视服务公司)를 설립, 이를 수익창출의 창구로 삼았다. 1982년에 CCTV의 광고수입과 기타 경영수입이 총 787만 위안에 달해, 80년 대비 544만 위안이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다.²¹⁾

이 시기 방송은 ‘대중의식(群众意识)’과 ‘소통의식(沟通意识)’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방송이 선전기구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정보전달, 여론인도(引导舆论), 오락제공, 사회에 대한 서비스제공 등의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²²⁾

2) 개혁개방 시기 방송프로그램의 특징

‘사업단위’로서 자립적 경제구조로의 정책적 변화에 따라 영화계가 방송 프로그램의 무상제공과 신작 영화 제공을 거부하고 예술계도 공연 촬영료를 인상하는 등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확보가 어렵게 된 시기이다. 결국, “경제가 산업관계를 조정하게 되면서 방송이 ‘공짜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²³⁾ 문화예술, 영화, 공연 등에 기대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방송은 이 시기에 들어 어쩔 수 없이 ‘자립(自己走路)’을 선택하게 된다.

20) 张锐, <我国电视业制度变迁中的路径选择研究>, 北京: 中国传媒大学博士学位论文, 2004, p.28.

21) 위의 책 p.28.

22) 刘习良, 《中国电视史》, 北京: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7, p.189.

23) “只讲风格, 不计代价的年代已经过去” 郭镇之, 《中国电视史》, 北京: 文化艺术出版社, 1997, p.19.

또한 이 시기에는 외국의 영상물들이 들어오고 해외 방송과의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을 통한 교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상업광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방송은 자체적인 재정을 확보하며, 자립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제작자들은 TV다운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도가 있었고 전문 프로그램 진행자(MC) 시스템도 구축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술의 발전도 방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80년대 들어 방송국들이 촬영 편집 시스템, 전자뉴스수집 시스템, 현장제작설비, 전자편집설비 등을 들여오면서, 기존의 영화필름을 이용한 제작방식에 변화가 온다. 방송프로그램이 영화제작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방송만이 갖는 현장감과 참여성 등의 특징들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결국 방송인들은 “스스로 걷기(自己走路)”에서 나아가 “독자적 강점을 발휘하고, 세상의 정수를 어우른다(扬独家之优势, 汇天下之精华)”는 믿음을 갖게 된다.²⁴⁾ 더 이상 축소판 영화관, 작은 영화관이 아닌 셈이다.

방송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국내 콘텐츠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해외 콘텐츠 수입이 활성화 된다. 1980년 초, CCTV가 터빙 제작한 프랑스의 <적과 흑(Le Rouge et le Noir)>에 이어 미국 SF시리즈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는 장기간 폐쇄된 사회에 살아 온 중국인들을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도 잇따라 수입되었는데, 1981년부터 방송된 <동물의 왕국>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다.²⁵⁾

한편 이 시기 CCTV는 각 지역에서 제작된 19편의 드라마를 방영하였다. 광둥 방송국과 CCTV가 공동 제작한 <신성한 사명(神圣的使命)>과 CCTV의 <청년(有一个青年)>이 인기를 끌었고, 상해방송국의 3부작 추리극 <장미향 사건(玫瑰香奇案)>은 중국 최초의 연속극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0년 국경절(国庆节), CCTV는 드라마를 위주로 한 전국 네트워크방송을 주최, 한 달 동안 총 40여 편의 드라마가 방영되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 후 국경절이나 음력 설(春节) 등 주요 명절 때마다 CCTV에서 드라마를 집중 방영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²⁶⁾

24) 刘习良, 《中国电视史》, 北京: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7, p.154.

25) 郭镇之, 《中国电视史》, 北京: 文化艺术出版社, 1997, p.25.

26) 위의 책 p.26.

개혁개방시기 방송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TV 다큐멘터리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1979년 CCTV는 일본 NHK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 <실크로드(丝绸之路)>²⁷⁾를 제작했다. 결론론적이지만, <실크로드>가 일본에서 실크로드 붐을 일으키며 책과 화보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반면, <실크로드>에 대한 중국 내 반응은 냉담했다. 하지만 공동제작은 중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시야를 넓히고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결국 1983년 8월 7일 CCTV는 25부작 장편 다큐멘터리인 <장강을 말하다(话说长江)>²⁸⁾를 내놓았다. <장강을 말하다>는 기존에 방송된 프로그램인 <조국각지(祖国各地)>²⁹⁾를 집대성한 프로그램으로, 다큐멘터리를 TV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고자 최초로 고정 MC를 사용하고 소설식 구조를 차용해 고정적으로 연속 방영을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이러한 신선하고 친근한 대화형 서술방식이 시청자들에게 직접 어필하여 ‘장강열풍’을 불러왔다.³⁰⁾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직후인 이 시기는 중국 방송사업의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 즉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경제와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며 여기에 방송 영역에 있어 명확한 산업화 정책이 시행되어 중국방송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특히 텔레비전 수상기가 가정용 매체로 일반 가정에 자리를 잡으면서, 날로 늘어나는 대중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TV 화면도 점차 다양하고 풍부해졌는데, 중국방송계는 대외교류를 통해 외국의 경험을 흡수하며 제작기술을 발전시켰고, 프로그램제작 수준도 향상되고 형식도 다채로워졌다. 동시에 전문 칼럼류 프로그램도 증가하는데 ‘사상성, 지식성, 예술성의 유기적 결합’³¹⁾을 추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7) 실크로드(丝绸之路)는 1979년 중국CCTV와 일본 NHK의 공동제작 다큐멘터리. 1년의 제작기간을 거쳐 총 15부작 725분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도시와 자연, 문화유적 등 역사적 발자취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28) 장강을 말하다(话说长江)는 1983년 제작된 중일 합작 다큐멘터리. 25부작으로 중국의 장강과 장강유역 사람들의 생활을 다루었다.

29) 조국각지(祖国各地)는 종합적 성격의 특집 프로그램으로 매주 두 차례 20분씩 방영되었다. 중국의 자연, 문물, 고적, 지방의 인물, 특이한 건축이나 성(城)과 같은 문화재를 소재로 하고 있다.

30) 郭镇之, 《中国电视史》, 北京: 文化艺术出版社, 1997, pp.41-42.

31) 刘习良, 《中国电视史》, 北京: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7, p.259.

7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중국 방송은 양적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도약을 이루고 강력한 주류매체로 자리 잡는다. 지식인과 학자들도 방송에 참여하면서 방송의 질도 향상되었고 방송인들은 여러 가지 모색 가운데 “뉴스프로그램을 통한 방송국 세우기(新闻立台)”를 선택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방송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시작되고, ‘방송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으며 다양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방송인들의 자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방송의 발전을 이끌어 낸 원동력으로는 수용자에 대한 연구, 광고에 의한 경영, 새로운 기술의 응용, 체제개혁 등을 들 수 있다.

4. 중국방송의 ‘산업’ 형성기(1992-2000)

1992년에서 2000년, 중국방송은 의미 있는 발전을 거두게 된다. 이 시기 중국방송은 “개혁의 심화를 통한 전면적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시기”³²⁾였다. 우선 국제 환경이 변화였고 둘째, 시장을 위주로 한 경제체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셋째, 과학기술, 특히 디지털압축기술과 위성통신기술의 발전이 방송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1) 등소평의 남순강화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방송

1980년대 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사회적 동요를 일으키더니 91년에는 구소련이 해체되는 등,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에 기반 한 세계의 양극화 구도가 무너졌다. 이에 대해 등소평은 “일부 국가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사회주의가 쇠약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민들은 단련되었고 교훈을 얻었기에 사회주의는 앞으로 보다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³³⁾고 말하며,

32) “深化改革全面发展新时期.” 刘习良, 《中国电视史》, 北京: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7, p.299.

33) “一些国家出现严重曲折, 社会主义好像被削弱了, 但人民经受锻炼, 从中吸取教训, 将促使社会主

중국식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이어 1992년, 덩소평은 남순강화(南巡讲话)를 시작으로 “사상을 해방, 속박에서 벗어나고 개방을 확대하며 현대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³⁴⁾고 하면서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를 기점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은 본격적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다.

97년 2월 덩소평이 사망했으나 같은 해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장쩌민(江泽民)총서기가 “덩소평의 위대한 기치를 이어간다”고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이 지속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장쩌민은 “평화와 발전은 현 시대의 주제이다. 세계 형세는 다극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국제 평화의 쟁취가 가능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혁명이 일어났으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³⁵⁾고 평가한다.

덩소평의 남순강화는 방송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1992년 6월16일,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3차 산업 발전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快第三产业发展的决定)>을 발표, 방송을 3차 산업으로 규정한다. 이때부터 방송은 예산 집행에 있어 정부의 보조나 관여 없이 자체적인 수익과 지출을 운용하게 되었으며, 1992년 9월 CCTV가 경영개발부를 설립하면서 시장경제와 함께 중국방송도 빠르게 발전한다.

한편 방송의 행정관리부처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86년1월에 설치된 광과전영전시부(广播电影电视部)가 98년3월 <국무원기구개혁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에 따라 국가광과전영전시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이하 광전총국)으로 개편되면서, 국무원 직속기구로 편입된다. 또한 96년에는 CCTV와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이 차관급 행정부처(副部级事业单位)로 승격된다.³⁶⁾

이 시기에는 중국의 미디어 관련 정책이 보다 개방되었고, 매체의 수가 급증하고 광고수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내게

义向着更加健康的方向发展。”《邓小平文选》第三卷，北京：人民出版社，1993，p.383.

34) “邓小平讲话的核心内容是解放思想，摆脱思想上的束缚，深化改革，扩大开放，加快现代化建设的步伐。”刘习良，《中国电视史》，北京：中国广播电视出版社，2007，p.300.

35) “和平与发展已成为当今时代的主题，世界格局正在走向多极化，争取较长时期的国际和平环境是可能的。世界范围内科技革命突飞猛进，经济持续增长。”江泽民，〈高举邓小平理论伟大旗帜，把建设有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全面推向二十一世纪〉，《中国共产党第十五次全国代表大会文件汇编》，北京：人民出版社，1997，9，p.4.

36) 刘习良，《中国电视史》，北京：中国广播电视出版社，2007，pp.301-302.

중국방송 변천사에 관한 연구-콘텍스트 속에 텍스트 찾기 91

되었다. 1991년 방송광고 수입이 10억 위안을 달성, 처음으로 신문광고를 앞섰으며 전체광고시장의 1/4을 차지했다. 14차 인민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경제발전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방송광고는 방송 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1993년 방송의 광고수입이 처음으로 정부예산지급액을 초과했으며 이는 중국의 방송 산업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음을 상징한 사건이었다.

99년 말, 중국의 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5000만을 돌파, 방송자체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전체수익의 85%를 차지하는 등 방송은 정치적 속성과 경제적 속성을 겸비한 문화산업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동시에 방송시장과 자본시장이 융화되면서 방송국들이 광고경영, 유선망 서비스, 영상제작 등과 같이 상업화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시켜 단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자본시장에 상장한다.³⁷⁾

2) 프로그램 구조 조정, 전문채널 설립, 방송선전의 전반적 수준 제고

90년대 방송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뉴스프로그램의 변화에 있다. 93년 3월 1일부터 CCTV1의 뉴스 방송이 하루 12번으로 늘어나, 거의 매 시간마다 뉴스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도 했고 중요한 뉴스는 반복 방영되어 시청자들은 뉴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5월1일부터는 아침시간대에 방송되는 뉴스매거진 프로그램인 <동방시공(东方时空)>이 신설되고 94년 4월1일에는 뉴스논평프로그램인 <포커스인터뷰(焦点访谈)>와 <세계보도(世界报道)>를 선보인다. 특히 <동방시공>은 운영방식에 있어 '도급제(承包制, 외부 제작사에 제작을 위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몇 개의 꼭지 사이마다 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있어 상당히 큰 자율권을 지녔다. 초기에는 오전이라는 불리한 시간대를 고려해 <동방시공>을 저녁의 황금시간대를 포함한 수차례 재방송을 허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저녁에 <동방시공>을 시청했다.

또한 당시 새롭게 도입된 토크프로그램은 중국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37) 상해동방명주주식회사(上海东方明珠股份有限公司, 94년 상장)와 호남전광전매(湖南广电传媒, 99년 상장), 북경거화유선(北京歌华有线, 2001년 상장) 등이 성공사례.

있었다. 중국은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이에 방송의 서비스기능과 오락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시청자들의 일상생활과 희로애락을 담는 사실주의적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결국 상해동방 TV의 <동방스튜디오(东方直播室)>를 필두로 각 방송국들은 속속 토크프로그램을 내놓게 되었다.³⁸⁾ 토크프로그램의 등장은 서양 프로그램의 영향도 있었으나 그 보다는 중국내 방송 커뮤니케이션 개념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대중들의 말할 공간이 열리게 되었고, 방송의 사실주의적 언어표현으로 수용자와 미디어간의 관계가 '지도'의 입장에서 '시청'과 '참여'의 입장으로 변화한 것이다.

같은 시기, 다큐멘터리는 영화에서 방송으로 옮겨와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다원화되었다. 사회교육 캠페인 프로그램도 일상적으로 자리 잡아 방송 프로그램은 보다 다채로운 양상을 보인다. 이와 동시에 개혁개방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은 정확한 '여론인도(輿論导向)'라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결국 CCTV와 지방방송국들이 프로그램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전문채널을 설립하게 되었다.³⁹⁾

90년대는 중국방송이 자체적인 커뮤니케이션적 특징과 방송의 문화적 특징을 형성해 나간 시기이다. 방송 제작과 송출의 각 단계마다 모두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서구사회와는 다른 독자적인 성장 메카니즘을 가지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개념에서의 변화를 보면 사실주의, 유형화, 토크프로그램, 생방송, 오락성 추구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프로그램의 교류와 경영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방송매체를 핵심으로 하는 '브랜드' 구축으로 발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5. 방송산업의 정합(整合)기(2000-현재)

21세기 들어 중국은 90년대 성장세를 기반으로 WTO에 가입,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즉 개혁개방의 성과로 얻어낸 경제 성장에 힘입어 '먹고 사는(温饱问题)' 문제에서 벗어나 2020년까지 전 국민이 중등생활 수준

38) 강수정, <발전과 변화, 토크프로그램과 중국방송>, 《중국학연구회》 47집, 2009.3, p.442.

39) 刘习良, 《中国电视史》, 北京: 中国广播电视出版社, 2007, p.311.

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⁴⁰⁾ 2006년 10월에는 '16기6중전회(16届6中全会)'에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构建社会主义和谐社会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통과시키면서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构建社会主义和谐社会)'이라는 정책을 내세운다. 특히 2007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을 통과시키며, 일당 정치체제에서의 시장경제적 기반을 확고하게 하였다.

사실 21세기 들어 중국방송은 공산당과 중국 정부, 방송 종사자간의 긴장이 이어진다. 중국정부는 계속해서 규제체계를 조정하고 미디어 관련법과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과 자본의 힘이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광전총국은 방송영화그룹(广播影视集团), 중앙과 성시지역 양급관리(中央和省市区两级管理), 유무선합병(有线与无线合并) 등 일련의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이는 행정적으로 분산되었던 중국의 방송자원을 다시 집중시키는, 일종의 변증법적 정합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01년8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광전총국, 신문출판사가 공동으로 <신문출판광과영시업의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深化新闻出版广播影视业改革的若干意见)>(17号文件)을 하달하여, 정식으로 민간자본의 매체 진입을 허용하였다.⁴¹⁾ 이는 중국 미디어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표면적인 정책과 관리 수단, 혹은 심층적인 제도의 안배를 통해 중국 방송이 자신의 길을 조정하고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게 됨을 말해준다.

또한 개혁개방이 심도 있게 진행되면서 제기된,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은 "중국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던 데에서 이제는 '말하기'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대로 들어섰으며 미디어의 다원화된 참여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거리감과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적 충돌을 막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일률적인 언론'이라는 단일화 된 경향은 다원화

40) 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중등수준의 생활수준을 갖는 사회)를 건설한다(十六大提出了到2020年全面建设小康社会的奋斗目标)는 목표를 제시한다.

41) 张锐, <我国电视业制度变迁中的路径选择研究>, 北京: 中国传媒大学博士学位论文, 2004, p.29.

되고 조화롭고 자유로운 방송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⁴²⁾ 결국, 샤쥬(夏駿)은 오늘날 “중국방송은 본질적으로 이미 대중이 주인인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⁴³⁾고 까지 말하고 있다.

21세기 산업으로서의 새로운 전환기에 놓인 중국방송의 이러한 변화의 한 요소로 기술의 변화를 간과 할 수는 없다. 중국 방송계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방송제작은 물론 방송이론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오늘날 중국 내의 여론은 기존의 매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더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⁴⁴⁾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방송이 주류 매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론의 장을 마련해야 했다. 2001년 미국의 9·11사건 발생 시 CCTV보도에 대한 ‘집단적 실어증’이라는 비판과, 2003년 사스(SARS) 대응의 문제들⁴⁵⁾은 전환기 중국 매체 역할에 대한 본보기가 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방송은 정부정책의 홍보와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인 경영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방송매체의 국가사업적 속성과 기업적 속성, 당성과 매체 본연의 속성, 정치선전기

42) “我国社会发展的目标已经从过去的以解决‘吃饭’问题为第一要义转变为今天的以解决‘说话’问题为第一要义的基点上，如何通过传播话语的多元参与表达，增进社会成员之间的沟通理解，以最大限度的消除隔阂、减少偏见，进而降低社会冲突发生的可能性。因此，改变既往‘舆论一律’的单一化倾向，建立多元和谐、彼此尊重、畅所欲言的舆论氛围就成为新的媒介‘语法’规则应当致力于实现的情境和目标之一。”喻国明，〈中国传媒业30年发展逻辑与现实走势〉，《青年记者》，山东省济南市，2008.4期

43) “中国电视从本质上说已经开始走向一个大众做主的时代了。”夏骏，《十字路口的中国电视》，北京：清华大学出版社，2006，p.229.

44) 谭天，〈与改革同步，与开放同行——拐点透析中国电视新闻三十年〉，《声屏世界》，江西省广播电视学会，2009.1期 p.6.

45) 2001년 미국의 9·11사건 발생 시 CCTV는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보도를 미루다가 밤 12시 뉴스에서야 자료화면도 없이 아나운서가 간단하게 사건의 발생만을 알렸고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사건의 정황을 보도했다. 이로 인해 CCTV는 방송계와 학계로부터 9·11사건에 대한 ‘집단적 실어증’에 걸렸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기간 국민들은 정보획득의 수단으로 외국의 언론이나 인터넷을 선택하게 되면서 국가급 언론매체인 CCTV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었다. 2003년 사스(SARS) 발생 시에도 초기에 매체가 입을 다물어 사스를 초기에 막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사스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방송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통해 사스에 대응했다. 당시 늦기는 했지만 방송의 상세한 상황보도로 사스 진압에 큰 효과를 거두면서 방송의 역할에 대한 반성도 생겨났다. 이를 교훈 삼아 2008년 사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하면서 호평을 받는다.

능과 사회공익적 기능 등은 아직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다. 특히 미디어의 시장화 과정이 위로부터 시작된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디어관련 정책은 여전히 시장확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

6. 결론

일반적으로 방송통사는 일정하게 구분된 연대기를 중심으로 당시의 주요한 토픽에 일련번호를 매긴 장(章)들로 구성되며, 토픽은 주로 정책, 규제, 공영방송, 네트워크, 편성 및 프로그램, 테크놀로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방송조직을 중심에 두고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친 제도나 사건, 인물들에 치우친 서술을 하기 쉬운 약점이 있다. 이를 극복시켜줄 수 있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이 가진 미학적, 일상적 측면이다.

미디어의 역사는 그 대상이 폭넓은 과정과 효과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인지, 아니면 제도로서의 미디어, 달리 말해 구조내의 정형화된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국한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⁴⁶⁾ 조항제에 따르면, 미디어 역사를 논하는 것은 양자 모두 대상이 되며, 보다 근본적인 목적으로는 전자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자료수집 등의 편의성 때문에 후자에 연구가 집중되면서, 미디어 역사는 미디어 제도나 조직의 성장, 발전사와 동일 시 되었다. 결국 放送史에 대한 논의들은, 방송의 역사가 정치, 경제 등 거시적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 이상으로, 프로그램의 미학적 변화와 그 양상,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문화적 변화까지 연관된 서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너(Corner)의 “텍스트 없는 콘텍스트의 역사”⁴⁷⁾는 그간 진행된 중국放送史 연구의 단면을 정확히 지적했다고도 할 수 있다. 중국 放送史에 대한 논의가 중국내 공식적인 정보와 정부 조직들의 기록과 문서에 의존하다 보니, 미디어 제작자 내면의 관심사, 그리고 조직적인 성장, 변화의 역동성과 그 흐름을

46) 조항제, <방송의 역사적 지식체계의 한계와 대안적 접근>, 《언론과 사회》 14권 4호, 2006, pp.2-36.

47) Corner, J. 2003, 조항제, 위의 책 재인용.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중국은 일 국가 중심주의적 서술, 전통적인 제도와 권력 중심적 개념 위주로 설명되어, 미디어 텍스트 분석이 극히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접근성에 대한 한계에서 비롯되었을 지라도, 역사의 담론 체계를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본문의 연구에서는 단순 역사적 사건과 그에 따른 방송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해당 시기 방송 종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적 흐름의 표현인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영향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콘텍스트에 텍스트를 넣고자 하는 초보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았다.

중국의 방송은 계획경제시기, 개혁개방초기, 산업형성기, 산업으로서의 정착기를 거치면서, 이데올로기의 안정성 확보와 방송의 산업적 발전 기반 확보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 방송 정책과 프로그램은 중국 放送史를 구성하는 동일체(identities)로서, 이러한 변증법적 정반합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개혁개방을 강조하며, 방송종사자의 창의적요구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분출되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서는 각종 제도적 조치로서 이러한 분출이 통제가능한 수준에 머물 수 있게 하며, 방송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어주었는가 하면, 다시금 통합을 유도하여 권력의 집중도를 높이는 식이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예외적일 수 없어서, 개혁 개방이후 가장 특징적인 방송텍스트인 중국의 토크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다양성으로 지방화나 선정성이 확장되더라도, 일정한 시기에 다시금 공익적인 프로그램들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곤 한다. 주목할 것은 토크프로그램의 경우, 이렇듯 개방성과 공익성 사이를 오가며, 다양한 시청자의 참여를 확대시켜오고 있다⁴⁸⁾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放送史는 특정한 시기에 방송규제와 산업, 테크놀로지, 프로그램과 수용이 동적인 힘의 상호작용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본데뷔르그(Bondebjerg)는 방송역사의 서술 차원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⁴⁹⁾ 첫째는 사회적, 제도적 차원으로 테크놀로지, 경제적 조건, 제도적 구조, 생산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미학적, 문화적 상징적인 차원으로 주로 미디어의 표현에 관계된 것으로,

48) 강수정, 〈발전과 변화, 토크프로그램과 중국방송〉, 《중국학연구회》 47집, 2009.3.

49) 조항제, 〈방송의 역사적 지식체계의 한계와 대안적 접근〉, 《언론과 사회》 14권 4호, 2006, p.10에서 재인용.

장르, 텍스트, 담론 등의 분석도구가 활용되는 것은 이에 속한다. 본문 분석에서는 해당시기 특징적인 중국 프로그램으로 이를 초보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셋째, 일상 문화 차원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와 미디어와 연관된 생활스타일 연구 등이다. 본데워르그의 이러한 방송의 속성에 기반 한 세 가지 서술 차원이 중국 放送史에서는 하나의 묶음(bundle)처럼 움직이며,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중국의 방송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외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사건과 이에 따른 제도적 영향 등의 거시적 접근이 주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의 구현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통한 조절은 프로그램 등 미시적 접근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음을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싶다.

《參考文獻》

-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郭鎮之, 《中國電視史》,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
- 胡正榮, <后WTO時代我國媒介產業重組及其資本化結果—對我國媒介發展的政治經濟學分析>, 《新聞大學》2003 秋
- 江澤民,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 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 《中國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文件匯編》, 北京: 人民出版社, 1997. 9.
- 劉習良, 《中國電視史》,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7.
- 孫振虎, <技術革新背景下的電視傳播革命>, 《中國電視》, 北京, 2008. 12期.
- 譚天, <與改革同步, 與開放同行—拐点透析中國電視新聞三十年>, 《聲屏世界》, 江西省廣播電視學會, 2009. 1期.
- 唐月民, <中國電視傳媒產業化研究>,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2008.
- 夏駿, 《十字路口的中國電視》,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6.
- 喻國明, <中國傳媒業30年發展邏輯與現實走勢>, 《青年記者》, 山東省濟南市, 2008. 4期
- 張銳, <我國電視業制度變遷中的路徑選擇研究>, 北京: 中國傳媒大學博士學位論文, 2004. 7.
- 趙玉明, 《中國廣播電視通史》, 北京: 中國傳媒大學出版社, 2006.
- 강수정, <발전과 변화, 토크프로그램과 중국방송>, 《중국학연구회》 47집, 2009. 3.
- 조항제, <방송의 역사적 지식체계의 한계와 대안적 접근>, 《언론과 사회》 14권 4호, 2006.

주봉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언론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허진, <중국 방송의 구조와 개혁 그리고 전망>, 《언론과학연구》 제2권 2호, 2002.

〈中文提要〉

本文以宏觀和微觀相結合的方式梳理了中國電視史。迄今在韓國國內對中國電視史的研究只側重于它的宏觀環境的變化。而筆者認為不看具體的電視制度、電視節目及制作環境等“文本”的變化，就無法準確地了解一國電視史的發展變化。因此本文在中國電視史梳理的基礎上初步探索了節目變遷的歷史，以期豐富國內對中國電視史的研究。

中國電視史可分為計劃經濟時期、改革開放初期、形成產業時期和至今的產業整合時期。在整個發展過程中，中國電視在意識形態的穩定和產業化發展之間形成了辯證發展：改革開放使電視走上產業化道路，從而電視節目也向着創新和娛樂發展，而其發展到開始向本質屬性挑戰的時候，政府則提出各種制度和措施，讓它控制在一定範圍內，并強調節目的公益性。

和中國電視制度的變遷過程一樣，各電視節目也一直在“開放性”和“公益性”之間形成曲線發展，而在此過程中繼續擴大觀眾的參與。

爲了豐富對中國電視的研究，今后對具體的電視節目、文本等微觀方面需要更加關注。

關鍵詞： 中國電視， 中國電視史， 電視制度， 電視節目， 電視產業

이 논문은 2009년 5월 11일에 접수되어 2009년 6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